http://dx.doi.org/10.14400/JDC.2014.12.4.21

한국 성인 영어 학습자의 스마트폰 활용 연구

김영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재개발학과

A Study on Smartphone Use by Korean Adult ELT Learners

Youngwoo Kim
Dept. of ELT Materials Development,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요 약 최근 몇 년에 걸쳐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 중에서 영어 학습에 스마트폰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영어 학습자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관련하여 활용 정도, 영향 요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 일반 성인 영어 학습자 집단과 비교될 수 있는 집단으로 스마트캠퍼스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62명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스마트폰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계속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영어 학습 관련하여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를 배울 의사가 많았고, 3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학습하는 콘텐츠를 선호하였다. 학습하고자 하는 영어 콘텐츠로는 듣기와 읽기처럼 수용적 기술(receptive skill)과 발음과 어휘 등 짧은 단위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였다. 그런데, 두 집단 모두 실제 영어 학습 관련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한 영어 학습 앱은 많지 않았고 만족하는 앱도 많지 않았다. 스마트캠퍼스 환경에 있는 사이버대 재학생들도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일반 영어 학습자 집단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여 스마트러닝을 통한 학습 성과를 얻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목적이 아직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 스마트폰, 영어 학습, 성인 영어 학습자, 스마트캠퍼스, 스마트러닝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s who use smartphones has increased drastically; many use smartphones to learn English. In this study, one hundred Korean adult ELT (English language teaching) learners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their use of smartphones and factors influencing such use. For comparison, sixty-two students of a Korean cyber university were surveyed; these students were able to study using their smartphones in a smart campus environment.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both groups positively used smartphones frequently, and that many intended to continue using them. With regard to ELT, both groups intended to learn English using their smartphones. Furthermore, they preferred certain types of ELT content: thirty-minute or less learning sessions, receptive English skills that focused on listening and reading, and short units of framed language items such as pronunciation and vocabulary. However, few of the respondents in both groups installed ELT apps on their smartphones, and few of the ELT apps satisfied them. The cyber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similarly about smartphone use, although their responses regarding smartphone use for ELT purposes were less positiv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goal of cyber universities in achieving optimum learning outcomes through smart learning and the smart campus has not yet been realized.

Key Words : smartphone, learning English, adult ELT learners, smart campus, smart learning

* 본 논문은 2010년도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해 지원됨.
Received 27 January 2014, Revised 26 February 2014
Accepted 20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Youngwoo Kim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Email: youngwookim@igse.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몇 년에 걸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임재영 등[13]은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로, "일반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앱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의 휴대폰"으로 정의하고 있다(p. 3). 이와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현황으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3,273만명으로 2011년 대비 45%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6%가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이런 급격한 스마트폰 사용 증가 추세는 2013년에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무선통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3,663만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 증가가 이렇게 주춤하고는 있으나, 김민철[4]에 따르면 다른 어떤 매체보다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하드웨어로써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성인 영어학습자는 대학교 재학생, 평생교육기관이나 영어교육 사교육기관 등에서 영어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 그리고 개별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성인들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대학생 수는 1,484,231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대학 교육과정 중에 교양영어 등 영어 관련 과목을 수강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평생교육기관은 2012년 현재 4,774개로 학생수가 18,328,664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교육서비스 사업체수가 172,095개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에 적지 않은 곳에서 성인 대상 영어 관련 강좌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기관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와 함께 개인적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도 많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고, 성인 영어 학습자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학습에 스마트폰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영어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특정 영역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보 통신 분야의 스마트폰 연구는 하드웨어로서의 사용 기기와 일반 서비스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기존 영어교육 분야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활용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영어교육 측면에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사회 일반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은지, 원은석, 정동빈[14]은 "스마트폰이 향후 영어 교수·학습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p. 343).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한다.

1. 한국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2.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학습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3. 스마트캠퍼스 환경에서 영어 학습자들의 스마트폰 활용은 어떠한가?

위의 연구질문 3번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한 사이버대학에서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성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는 최근에 많은 대학이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여 교육적 성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예상되는 효과를 조사해보기 위해서이다. 스마트캠퍼스에 대한 정의로 노규성과 주성환[6]은 "스마트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형의 캠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사, 행정, 교육, 연구, 학생활동, 도서관서비스를 지능화하여 상호협력형, 체험형, 개방형 대학교육을 실현하는"(p. 187) 캠퍼스로 정의하고 있다.

2. 선행연구

2.1 한국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 2009년말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2010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

재한 모토롤라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삼성에서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섰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0년 10월에 500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 말에 2,258만명, 2012년 말에 3,273만명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들어서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의 증가세가 2013년에 들어 주춤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 시간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민철[4]은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2012년 조사와 2013년 조사를 비교하였는데, 2013년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2012년 약 46분에서 2013년에 66분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결과는, 조사한 39개의 미디어매체 중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용시간은 데스크톱 PC의 사용시간을 추월하는 수치이다. 사용하는 콘텐츠로는 애니팡을 위시로 한 게임 콘텐츠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통화나 문자는 줄고 SNS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LTE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었다. 임재영 외[13]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인해 PMP, 게임기, MP3, 전자사전의 이용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PC, 노트북의 사용량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스마트폰 사용의 영향 요인

스마트폰 사용 관련하여 여러 연구 중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용동기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양일영과 이수영[9]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초기 이용자들의 주된 이용 동기는 '정보획득,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관계, 서비스 통합성, 유행 및 과시, 상시적 정보 활용, 즉시성, 습관성, 이용 편리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획득'을 들고 있다.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조현, 남달우, 김성희[16]는 Davis의 기술수용모형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독립변수(습관성, 의사소통, 비용, 사회적 관계, 실시간 정보 활용)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용을 제외한 4가지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습관성과 유희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성과 이상현[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기술적 효용, 고객기반 수, 보완재의 가용성'이 수용태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송철과 안연식[7]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의 본질적 가치보다 네트워크 가치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영향 요인 분석에 있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이러닝 서비스의 사용 동기를 연구한 이종만[10]의 연구에서도 구전효과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러닝 서비스의 사용 의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앞의 양일영과 이수영[9]의 연구결과처럼 '습관형성'이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구철모, 김희웅, 전유희[1]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3 영어교육에 스마트폰 활용 연구

영어교육 분야에서의 스마트폰 연구는 크게 두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영어교육에 스마트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영어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분석하거나 실제 앱을 개발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연구이다.

첫째 분야 연구로 조세경[15]은 영어교육과 같은 외국어 학습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MALL)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 사례 및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조세경의 연구는 영어교육에서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한 국내 초기 연구로 의의는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에 바탕하지 않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세부적인 연구 주제를 탐색해본 연구로는 장은지, 원은석, 정동빈[14]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휘 학습에 있어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SNS 앱이 컴퓨터의 네이트온, 그리고 면대면 학습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휘 학습에 대해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동하면서 쉽게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과 짧은 단위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연구로 스마트폰을 계

속 사용해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빠진 점이 아쉽다.

둘째 분야인 영어 학습 앱의 분석으로 Yang[19]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인기가 높은 영어 학습 앱 100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앱이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multi-level 앱이 31%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 관련하여 Yang[19]은 스마트폰 주 사용자가 대학생, 직장인 등 성인 영어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분석한 100개의 앱 중에서 어휘 학습 앱이 39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회화 앱이 20개로 그 다음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어 듣기, 읽기와 같은 앱은 많지 않았다. 성인 영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 앱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 어휘 앱과 회화 앱이 11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토익, 토플과 같은 시험준비용 앱이 6개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김나영과 김형엽[2]은 읽기앱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앱이 많지 않았고, 현재 개발된 앱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을 개발한 사례로 김승준과 김갑수[3]는 스마트폰용 영어 단어 학습 앱 개발을 위한 설계 원리를 제시하면서 개발된 앱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지선과 최재혁[11]도 어휘앱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연구하였다.

영어 학습 앱 분석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은 Kim, Ilon, Altmann[18]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는 스마트폰을 학습 장비로 생각하면서 일반 앱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을 영어교육에 적용해본다면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제 사용되는 진정성 있는 (authentic) 영어 콘텐츠를 이용해서 영어 학습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한국인 성인 영어 학습자로 다음과 같이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일반 성인 영어 학습자 집단(이하 일반 집단, General ELT Group)으로 100명의 영어 학습자이다. 이 집단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영어 학습을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영어 학습을 하는 일반 영어 학습자이다. 두 번째 집단은 A 사이버대에서 영어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62명의 재학생(이하 사이버 집단, Cyber Student Group)이다.

〈Table 1〉 Description of Participants

	General ELT Group	Cyber Student Group
Gender	Male · 52 Female · 48	Male · 21 Female · 41
Age	20-29 · 27 30-39 · 35 40-49 · 24 Above 49 · 14	Below 20 · 1 20-29 · 23 30-39 · 23 40-49 · 9 Above 49 · 6
Education	High school · 5 College · 77 Graduate chool · 18	College · 62
Occupation	Student · 14 Salary-man · 68 Self-employed · 7 Others · 11	Student · 12 Salary-man · 27 Self-employed · 10 Others · 13

일반 집단은 본 연구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위해 임의 선발된 집단으로 본인이 영어 학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남녀 비율은 비슷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군으로는 직장인이 많아 평생교육 관점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 응답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직업 분류에서 자영업과 프리랜서를 분리한 것은 이들의 경우 직장인에 비해 영어 학습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이버대 집단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많은 편이고, 연령대도 20-30대에 다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사이버대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버대 집단도 직업에 있어서는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어, 평생교육 관점에서 영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성인 영어 학습자의 스마트폰 활용 관련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 스마트폰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되었다. 설

문 문항은 크게 두 유형으로 보기에서 응답을 고르는 선택형 문항과 응답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이었다.

설문 문항 및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영어 교육 전문가와 사회조사방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과 설문지를 보완하였고, 2013년 11월에 예비설문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12월에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의 경우 자체 설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응답을 받았고, A 사이버대의 경우에는 강좌 사이트의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응답 결과 중 선택형 문항의 응답 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부 응답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서술형 문항의 응답 결과는 텍스트 데이터로 저장하여 반복적인 분석과 코딩 과정을 거쳐 응답자의 응답을 분류하여 빈도를 계산하여 결과 제시 및 논의에 포함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도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계속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영어 학습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 학습은 많이 하고 있지 않으나 학습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반 집단과 사이버대 집단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사이버대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 질문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성인 영어 학습자들의 스마트폰 활용 정도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기 관련하여, 일반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시기 관련한 응답에서 2010년 이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가 넘게 늘어나다가 2012년에는 14% 증가하였고, 2013년에 7%가 늘어나 증가 추세가 주춤했다. 사이버대 집단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010년 이전 27%, 2010년 24%, 2011년 26%, 2012년 15%, 2013년 8%). 이와 같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계기를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음 <Table 2>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Reasons to Use Smartphones

Reasons	General	Cyber
Functions (apps) to use on smartphones	22%	25%
Content to use on smartphones	16%	11%
Preference for using new electronic devices	13%	11%
End of contract of previous mobile phone	11%	14%
Being used by most people	11%	11%
Learning English	11%	2%
Others' recommendation	8%	7%
Necessary for work	7%	8%
Other	2%	12%

두 집단 모두 스마트폰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재영 외[13]의 결과와 유사한데,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높은 순서로 제시하면,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싶어서, 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서, 고기능 고성능의 단말기를 이용하고 싶어서, 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해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 중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권해서 사용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결과는 문송철과 안연식[7]의 연구 결과와 이종만[10]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로 스마트폰의 경우 필요한 경우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이다 보니 PC와 같은 다른 하드웨어보다 네트워크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높지는 않았다. 특히, 사이버대 집단의 경우 응답이 낮았는데, 이는 사이버대의 특성상 PC를 이용해서 영어를 학습해왔

기 때문에 별도의 영어 학습을 위한 장비가 덜 필요한 상황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계기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처럼,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Table 3>에서 나타난 각 항목에 대한 응답빈도이다. 일반 집단의 경우 원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이버대 집단은 설문조사 기능의 제약으로 복수 응답의 개수를 2개로 제한하였다.

〈Table 3〉 Purposes of Using Smartphones

Purposes	General	Cyber
Email	78	14
Schedule management	76	5
Education(Learning)	95	12
Obtaining information	85	29
SNS	88	44
Leisure	84	9
Calling	16	9
Other	3	2

위 <Table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반 집단의 경우 전화통화용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보기로 제시한 그 외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응답자들은 여러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의 개수를 2개로 제한한 사이버대 집단의 응답 결과에서는 사용 목적의 우선 순위를 볼 수 있는데 SNS와 같은 네트워크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 수집 목적이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이메일 및 교육학습의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의 사용 관련하여 일반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9%가 스마트폰 사용에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응답자의 10%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오직 1명만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이버대 집단의 경우 일반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고, 만족도도 일반 집단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사이버대 집단의 68%가 스마트폰에 '만족'한다고 하여 역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자유 응답을 유형화하고 분류하였는데, 각 집단별로 만족하는 이유 중 상위 5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빠른 정보 검색 (두 집단 모두)
- 사용자의 편의성 (두 집단 모두)
- 어디서든 PC 없이 사용 가능 (두 집단 모두)
- 여러 앱으로 다양한 콘텐츠 사용 가능 (일반)
- 다양한 면에서 유용함 (일반)
- 생활의 편리함 증가 (사이버대)
- 실시간 소통의 가능 (사이버대)

위와 같은 응답 결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시간과 장소에서의 신속성(any time, any place)을 높이 평가했고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도 만족하는 이유로 꼽았다. 그 외 각 집단별 응답도 '다양성, 유용함, 편리성, 실시간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마트폰 관련 다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다.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불만족 이유는 별로 없었으나 일부 응답자에서 나타난 응답으로 '스마트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된다', '요금제가 부담스럽다'와 같은 응답과 함께 '스마트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 집단의 98%와 사이버대 집단의 87%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자유 응답에서 나타난 주요 이유로 두 집단 모두 스마트폰의 '편리함', '높은 만족도', '높은 활용도'를 들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로 볼 때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 사회에서 대세를 넘어 필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관련 타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2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학습의 영향 요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 학습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 다음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 집단과 사이버 집단 모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Table 4〉 Consistence in Learning English

Consistence	General	Cyber
Will definitely continue learning English with smartphone	19%	16%
Will continue	64%	40%
Will consider continuing	15%	31%
Will not continue	2%	8%
Definitely will not continue	0%	5%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를 학습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학습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다음 <Table 5>의 결과처럼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Table 5〉 Effectiveness of Learning English

Effectiveness	General	Cyber
Very effective	10%	10%
Effective	56%	42%
Moderate	29%	37%
Less effective	5%	8%
Not at all	0%	3%

하지만,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여러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 경쟁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사실이 영어 학습에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 제시한 스마트폰 사용 목적에 대한 결과처럼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을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집단의 경우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 영화, TV와 같은 영상을 감상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웹서핑을 하거나 스마트 뱅킹을 하는 비율도 8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콘텐츠와 서비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영어 학습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쟁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 <Table 6>의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 학습을 어느 정도 하는 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두 집단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스마트폰으로 영어 학습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영어 학습 콘텐츠와 서비스가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Table 6〉 Degree of Learning English

Degree of learning English	General	Cyber
Very much	4%	2%
Much	17%	13%
Moderate	64%	35%
Not particularly	15%	37%
Not at all	0%	13%

현재 PC 등으로 영어 학습을 하는 사이버대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학습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이 한다'는 응답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는 점을 볼 때,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학습이 주된 학습 방법이 되기보다는 보조적인 학습 수단이 될 여지도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4.2.2 영어 학습 영역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학습을 희망하는 영어 기능 및 영역을 보면 듣기, 읽기와 같은 수용적 기능(receptive skills)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발음, 어휘처럼 짧은 단위로 학습할 수 있는 영역에 두 집단 모두 관심을 보였다.

〈Table 7〉 Areas of Learning English

Areas	General	Cyber
Pronunciation	14%	16%
Grammar	10%	4%
Vocabulary	18%	23%
Listening	26%	29%
Speaking	11%	3%
Reading	13%	13%
Writing	5%	2%
Conversation/Discussion	5%	4%

언어 기능 중에서 수용적 기능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의 상황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학습 영역으

로 학습자가 이동하는 상황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수용적 기능 중에서 듣기 기능에 대한 수요가 읽기 기능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시선을 자유롭게 두면서 스마트폰과 헤드셋을 이용해서 듣기 학습을 하기 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읽기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듣기에 비해 학습하는데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Yang[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앱 중에는 듣기 앱이 많지 않은 형편이라, 듣기 앱에 대한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Kim, Ilon, Altmann[18]의 연구처럼 영어 듣기 학습을 위해 구태여 영어 학습 앱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영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은 발음과 어휘 영역이다. 발음은 듣기의 하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발음 학습은 말하기의 기초 능력을 키우는 영역으로 영어로 회화를 하고자 하는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영어 기능이다. 그런데 발음은 일반적인 듣기에 비해 정확하게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발화를 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발음 학습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휘 영역은 영어를 사용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바로 찾아 사용하는 경우와 일련의 학습 계획을 갖고 어휘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앞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을 필요가 있고, 뒤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어휘 역량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영어 학습 영역 관련하여 일반 집단과 사이버 집단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집단은 언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문법처럼 기본적인 영어 학습 영역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대 집단은 기타 영역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을 주된 영어 학습 수단으로 생각하고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대 집단의 경우 기존의 PC 기반 영어 학습 방법에 스마트폰을 보조적인 학습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4.2.3 영어 학습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어를 학습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선호하는 지 묻는 문항에 대해 두 집단 모두 10분-30분 사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분 이내와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일정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영어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Table 7>에서 발음과 어휘 학습을 선호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듣기, 읽기 콘텐츠의 경우도 학습 시간을 짧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하여 면대면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영어 학습의 경우에는 50분이나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대학교의 콘텐츠도 그동안 이와 같은 시간 단위에 맞춰 개발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학습 콘텐츠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본적인 시간 단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시간 선호가 일반 직장인과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영업/프리랜서 직업군간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분석한 결과 두 직업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반 직장인들도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4.2.4 모바일앱과 모바일웹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를 학습할 경우 우선적으로 영어 학습 앱(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보면 영어 학습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두 집단 모두 영어 학습 앱 사용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사용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많지는 않지만 사용해본 앱으로 두 집단 모두가 언급한 앱은 무료 앱인 '굿모닝팝스, 네이버 영단어, TED' 등이 있었고, 유료 앱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구입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또 다른 영어 학습 방법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사파리,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로 보는 방법으로 모바일웹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 학습에 웹브라우저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다음 <Table 8>처럼 두 집단 모두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Degree of Using Web Browsers in Learning English

Degree of Browser Use	General	Cyber
Very much	5%	6%
Much	25%	11%
Moderate	41%	42%
Not particularly	21%	23%
Not at all	8%	18%

응답 결과로 볼 때 웹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사용하지 않는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대 집단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이라는 응답이 꼭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애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영어 학습을 위해 꼭 영어 학습 앱이나 웹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답변 중에 TED와 같은 일반 앱을 활용하여 영어 듣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Kim, Ilon, Altmann[18]의 연구 결과처럼 일반 앱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점차 오디오북과 같은 전자책 앱을 이용해서 영어 듣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향을 영어교육에 적용해본다면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제 사용되는 진정성 있는 (authentic) 영어 콘텐츠를 이용해서 영어 학습을 할 가능성이 크다.

4.2.5 편의성

지금처럼 사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빨리 빨리 문화'가 널리 퍼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편리함'이라는 특성은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스마트폰이 영어 학습에 편리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응답은 영어 학습에 스마트폰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Table 9〉 Convenience of Learning English with Smartphones

Convenience	General	Cyber
Very much	12%	6%
Much	55%	45%
Moderate	27%	29%
Not particularly	6%	15%
Not at all	0%	5%

편의성의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두 집단 모두 '언제 어디서든 학습 가능', '쉽게 활용 가능'을 많이 언급하였다. 그 외 많이 언급한 이유로 일반 집단의 경우 '휴대성', '앱으로 원하는 학습'을 들었고, 사이버 집단은 '여가시간에도 활용 가능', '궁금한 단어를 바로 찾기의 편리함'을 들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단어 찾기의 편리함'과 같은 응답을 제외하고 편리성의 이유가 영어 학습만의 특화된 이유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편리함이라는 점이다. 즉, 스마트폰이 영어 학습에만 특별히 편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영어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학습에서 편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항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작은 화면', '학습용으로는 부족함'을 이유로 많이 들었고, 일반 집단의 경우 '영어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움', 'PC보다 불편함'을 들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은 영어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때 편리한 점보다 불편한 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3 스마트캠퍼스 환경 하에서의 영어 학습자의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캠퍼스 환경 하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대 집단의 반응이 모든 항목에 있어 일반 집단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련 경험을 보다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막연하게 긍정하기 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캠퍼스 환경에서 영어 학습자들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이버대 학생은 김주혜[5]의 연구 대상자와 동일한 집단으로 이들이 스마트러닝을 할 수 있는 스마트캠퍼스가 구축된 상황이다. 해당 사이버대학교는 2012년 초부터 HTML5 기반의 표준웹으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여 사용기기나 브라우저에 구애없이 사이버대 학생으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플래시(Flash) 기반으로 구축된 강좌 중 일부를 스마트기기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좌로 변환하여 모바일웹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어교육 분야의 경우 강좌의 40% 정도를 스마트기기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으로 해당 대학교의 강좌를 수강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사이버 집단의 78%가 '수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5%가 '많이 수강한다'고 응답하였고, 1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로 볼 때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학습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 캠퍼스가 구축되고, 스마트기기에서 수강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서 활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과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사이버대 집단이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였다.

〈Table 10〉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of Taking English Courses with Smartphones

	Convenience	Effectiveness
Very much	5%	8%
Much	19%	37%
Moderate	35%	37%
Not particularly	15%	8%
Not at all	26%	10%

위와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어 강좌 수강에 대한 사이버대 학생들의 응답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반적인 영어 학습의 편의성, 효과성에 대한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체적인 학습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요소가 보다 명확하게 보이고 그로 인해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적인 영어 학습'과 '사이버대 영어 강좌 수강'의 편의성과 효과성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두 경우의 편의성이 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이는 한쪽의 경우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다른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효과성에 대한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경우가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경우를 택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강좌 수강이 편리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앞의 일반적인 이유와 유사하였다. 대신 편리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보다 구체적인데 여러 응답자들이 자유 응답으로 제시한 주요 이유를 목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강좌가 있음
- 와이파이 없이 강좌 수강이 불가능
- 강좌 수강 방법이 익숙하지 않음
- PC를 이용한 강좌 수강이 더 도움이 됨
- 글자를 입력해야 하는 강의 수강시 불편함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강좌 수강이 건강에 좋지 않음
- 스마트폰의 화면이 작아 불편함

사이버대의 경우 PC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PC 환경에 콘텐츠와 사용자가 최적화되어 있다가 최근에 스마트폰의 대량 보급으로 이에 맞춰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사용자들이 PC 환경을 여전히 선호하고, 모든 강좌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변환했거나 개발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동영상 중심의 강좌이다 보니 와이파이 환경에서 큰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위와 같은 불편사항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위의 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나 해당 사이버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자의 의견 중에는 학생들의 경우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앱으로 강좌를 수강하기 원하는데, 사이버대 당국은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강좌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바일웹을 선호하고 있어 이런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강좌 수강을 계속할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A 사이버대 집단의 응답자 중 40% 정도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꼭 계속 수강하겠다' 11%, '계속 수강하겠다' 31%). '수강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6%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스마트폰

을 이용한 강좌 개발 및 운영이 개선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강좌 수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 영어 학습'과 '영어 강좌 수강'의 지속 여부에 대한 사이버대 학생들의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내어본 결과 두 응답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영어 학습을 계속하겠다는 사이버대 학생이 꼭 사이버대의 영어 강좌를 스마트폰으로 계속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결과와 함께 앞의 효과성 부분에서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이버대 당국에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활용 관련 결과와 관계 없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사이버대 자체의 영어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의의

본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일관된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 학습을 많이 하지 않지만,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편리한 방식의 영어 학습 앱이 나올 경우 적극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학습의 효과를 얻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학습 콘텐츠와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첫째, 영어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듣기, 읽기와 같은 수용적 영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발음과 어휘처럼 기초적인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콘텐츠를 30분 이내로 짧은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분량으로 개발한다.

둘째, 영어 학습 콘텐츠 개발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네비게이션을 구현하여 사용자 불편요소를 없애고 편의성을 높인다.

셋째, 효율성 측면에서 영어 학습 콘텐츠를 모바일웹을 통해 제공하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앱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넷째, 스마트폰의 일반 영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하는 스마트러닝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여섯째,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대 영어 강좌 수강은 편의성 측면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영어 학습 상황과 독립적인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적인 영어 강좌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 일반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어 학습의 가능성을 탐색해본 연구로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is funded by a research grant from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in Korea in 2010.

REFERENCES

[1] C. M. Koo, H. W. Kim, & Y. H. Joun, A study on the explorative or exploitive use of smartphone: Focusing on IS Continuance and Habit Theory,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6, No. 3, pp. 67-91, 2011.

[2] N. Y. Kim, & H. Y. Kim, A study of English reading education through the smart-phone app practical use: Focusing on communicative competence, Lingua Humanitatis, Vol. 13, No. 2, pp. 319-349, 2011.

[3] S. J. Kim, & K. S. Kim, Design and implementation learning English words smart-phone appli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Android platform by focus on for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cucation, Vol. 16, No. 2, pp.

223-231, 2012.

[4] M. C. Kim, Behavioral change in possession and use of smartphone: Comparison between 2012 and 2013, KISDI STAT Report, pp. 21-25, Seoul: KISDI, 2013.

[5] J. H. Kim, Students' perceptions and use of smart learning in English education: A case study of K cyber university.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25, No. 3, pp. 253-278, 2013.

[6] K. S. Noh, & S. H. Ju, An exploratory study on smart campus model,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9, No. 3, pp. 181-190, 2011.

[7] S. C. Moon, & Y. S. Ahn, The user's recognition for smart phone's value in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Vol. 11, No. 3, pp. 55-66, 2011.

[8] H. K. Shin, & Y. A.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mart learn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time.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Vol. 16, No. 5, pp. 93-105, 2011.

[9] I, Y, Yang, & S. Y, Lee, Exploring smartphone early adopters categories on the basis of motivatio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5, No. 1, pp. 109-139. 2011.

[10] J. M. Lee, The empirical study on the motivations for e-learning service usage of smart device users. Journal of Korean Socieity Internet Information, Vol. 13, No. 2, pp. 119-126, 2012.

[11] J. S. Lee, & J. H. Choi, Implementation of application for vocabulary learning through analysis of users needs using smart phone.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15, No. 1, pp. 43-53, 2012.

[12] M. S. Yim, & S. H.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determinants of the dominant design on intention to continuous use of smartphon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0, No. 10, pp. 247-259, 2012.

[13] J. Y. Lim, J. Y. Yoo, S. J. Jang, M. Y. Kim, & J. M. Yoo, A Survey of Smartphone Use in Korea, 2012, Seoul: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3.

[14] E. J. Jang, E. S. Won, & D. B. Jeong, The effects of using smartphones to assist lexical inferencing strategies in vocabulary lear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Vol. 12, No. 3, pp. 342-367, 2011.

[15] S. K. Cho, Smartphones used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 12, No. 3, pp. 211-228, 2009.

[16] H. Jo, D. W. Nam, & S. H. Kim, A study on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of smart phone. The e-Business Studies, Vol. 12, No. 3, pp. 251-268, 2011.

[17] M. S. Han, D. M. Bae, S. M. Lee, & Y. J. Sohn, An analysis and ex-port regulation on user's smartphone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Seoul: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

[18] J., Kim, L., Ilon, & J., Altmann, Adapting Smartphones as Learning Technology in a Korean University, In J. Altmann (Ed.), The TEMEP Discussion Paper Series. Seoul: The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19] Yang, S. Analysis and evaluation of ELT smartphone application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 28, No. 1, pp. 297-320, 2012.

김 영 우(Kim, Youngwoo)

- 1987년 2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육학 학사)
- 1994년 8월: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교육학 석사)
- 2001년 12월: 텍사스주립대학교 외국어교육과 (철학박사)
- 2002년 6월~현재: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재개발학과 교수
- 2008년 8월~현재: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육연구소 소장
- 2006년 1월~현재: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편집위원
- 2009년 1월~2010년 12월: 한국응용언어학회 편집위원장
- 2007년 1월~2008년 12월: 한국응용언어학회 총무이사
- 관심분야: 스마트러닝, 스마트워크, 모바일오피스, 영어교육 콘텐츠 및 매체 연구, 특수 목적 영어, 전자책
- E-Mail : youngwookim@igse.ac.kr